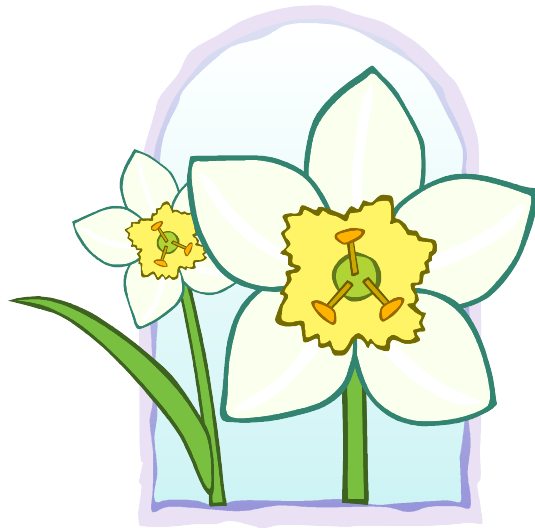




녹차밭에서

따사로운 햇살
포근히 감싸는 신록의 계절

청량한 골바람
에메랄드 물결 일렁이고

일상의 굴레 벗고
자연의 숨결 몸을 맡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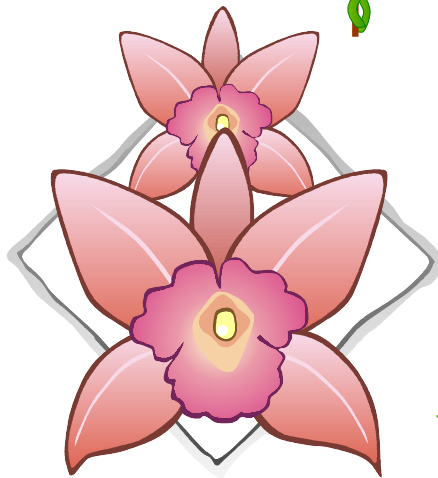
솔 밑 구성진 가락
춘향 부르는 사랑가 애잔하다

치나물 숙나물
봄을 뜯는 아내 팔목에

향긋한 저녁 밥상
애뜻한 사랑 피어나고

바베큐 구수한 짙은 손길
약자한 아이들의 웃음 소리에

차향 가득 7부 가정
그리스도 사랑 드높아 간다



김모세

